

양산지역 이주여성노동자 노동 · 안전 실태조사 보고

실태조사 : 양산이주여성노동인권 활동가

용 도 : 이주여성노동자 노동 · 안전 실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목차

서론

- 실태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 실태조사의 의의
-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본론

- 이주민(노동자)현황
- 양산지역 이주민 현황 및 지역특성
-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 실태조사 결과

결론

- 요약 및 제언

서론

1. 목적과 필요성

- 2024년6월24일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한국의 산업현장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 문제도 점점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노동자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남성'노동자 기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참사에서 희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이고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보이지 않은 (이주)여성노동자'를 사회의 시선에 들어오게 하는 사건이자 계기가 되었다.

- (행정안전부 2024.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3월)의 데이터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수는 2,722,108명으로 달하였고 한국 전체 주민 수의 5%가 넘었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동포,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주민들은 입국목적에 따라 체류 자격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 생계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영역에서 노동과 삶을 통해 기여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필요한 곳에 잠깐만, 값싸게 쓸 수 있는 노동력으로 여겨지고 쓰고 버리는 부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 이주민의 인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주민들의 삶, 처해 있는 노동환경 등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저출생·고령화, 3D업종에 대한 내국인 기피 등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다.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2023)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이주민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3.11.1. 기준 외국인 주민은 2,459,542명으로 22년 2,258,248명에 비해 201,294명(8.9%)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290,104명, 여자가 1,169,438명으로 22년 대비 남자는 130,817명(11.3%), 여자는 70,477명(6.4%) 각각 증가하였다.

- '이주', '노동자', '여성' 삼중의 교차적 위치에 놓여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주변화가 되어 가면서 여러 복합적 노동·인권 문제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언어, 법·제도, 생활양식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남성보다 더 낮은 사회적 지위와 임금, 모성보호 부재, 성폭력 등 복합적 차별을 경험한다.(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김영란) 이주여성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장시간·저임

금·열악한 노동환경, 법적 보호 미비, 성차별과 이중 차별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요구가 시급해 보인다.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 상황은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아직까지 퇴직금, 임금체불 상담이 대부분이다. 1년을 일을 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 일을 했으면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이지만 이주민들한테는 당연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기만 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눈앞에 놓이기도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오로지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여성들은 시간제 노동, 도급제 노동 등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

-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주변화가 된 이주여성들이 타자의 시각에서의 재현을 거부하고 자기의 언어로 말해보려고 한다. 이주여성노동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요청한다. 나라별 이주여성노동자와의 만남을 통해 근로조건, 작업환경, 비자형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조사와 함께 노동·안전에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에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본 실태조사의 의의

- 의사소통의 어려움, 신분의 불안정, 구제 방법을 몰라서 등등의 장애물이 있기에 어떻게 하면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라별 이주여성노동인권활동가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이번 노동·안전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주여성노동인권활동가들이 현장의 상담을 통해 느끼는 문제들을 조사를 통해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주여성노동인권활동가의 노동문제의식 향상과 전문적 지식의 획득과 동시에 이 과정을 거쳐 실태조사에 참여한 나라별 이주여성노동자의 문제의식 시각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사업장 안전)를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리더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직접적인 현장의 문제에 대해 조사를 통해 정책개선에 도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현장의 활동과 함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 촉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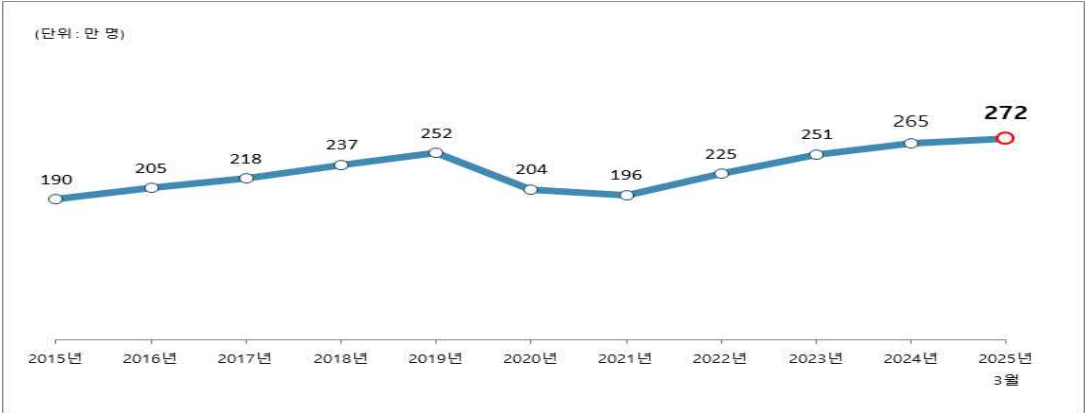
- 본 실태조사는 이주여성노동인권활동가 역량강화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노동인권활동에의 중심에 있어 이주여성노동인권활동가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노동, 현장, 권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와 주변의 노동인권 문제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는 웹툰 『송곳』의 유명한 대사이다.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불편한 노동문제를 어떻게, 어디서 볼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노동현실은 따라질 수 있다. 이주여성노동자들 문제가 결국 그저 ‘타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 본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노동인권 현장에 활동하는 단체의 연대, 지역사회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본론

1. 이주민(노동자)현황

1) 이주민 현황

〈외국인 증가 추이〉



〈표1-1〉 출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년3월 월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국내 체류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3월까지 약 272만 명에 달하고 있고 한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다. 동시에 전체 이주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체류자격별 이주민 현황

< 체류 이주민 체류자격별 현황 >

구 분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전월 대비	'24년 3월	전년 대비
총 계	2,650,783	2,620,853	2,595,935	2,722,108	4.9%	2,594,936	4.9%
사증면제(B-1)	206,546	186,763	183,433	215,131	17.3%	237,053	-9.2%
관광통과(B-2)	153,101	127,257	122,575	153,110	24.9%	156,468	-2.1%
단기방문(C-3)	162,719	177,930	138,430	168,159	21.5%	172,854	-2.7%
단기취업(C-4)	2,848	2,413	3,039	3,366	10.8%	2,699	24.7%
유 학(D-2)	178,519	177,830	195,450	204,074	4.4%	168,989	20.8%
기술연수(D-3)	1,808	1,775	1,752	1,753	0.1%	1,789	-2.0%
일반연수(D-4)	87,887	85,838	80,853	85,189	5.4%	74,825	13.9%
종 교(D-6)	1,773	1,772	1,776	1,790	0.8%	1,615	10.8%
상사주재(D-7)	1,053	1,031	1,041	1,048	0.7%	1,134	-7.6%
기업투자(D-8)	8,376	8,347	8,436	8,479	0.5%	7,750	9.4%
무역경영(D-9)	2,526	2,618	2,715	2,729	0.5%	2,403	13.6%
교 수(E-1)	1,802	1,793	1,846	1,862	0.9%	1,927	-3.4%
회화지도(E-2)	13,443	13,333	14,135	13,447	-4.9%	13,855	-2.9%
연 구(E-3)	3,426	3,309	3,294	3,322	0.9%	3,760	-11.6%
기술지도(E-4)	209	205	208	205	-1.4%	208	-1.4%
예술흥행(E-6)	4,406	4,267	4,312	4,477	3.8%	4,626	-3.2%
특정활동(E-7)	63,580	64,659	66,646	68,316	2.5%	49,112	39.1%
계절근로(E-8)	24,530	21,234	22,421	36,289	61.9%	19,240	88.6%
비전문취업(E-9)	337,279	336,252	337,536	338,534	0.3%	325,523	4.0%
선원취업(E-10)	21,922	21,767	21,755	21,603	-0.7%	21,560	0.2%
방문동거(F-1)	99,051	96,971	95,375	93,630	-1.8%	111,247	-15.8%
거 주(F-2)	61,292	61,763	62,191	62,622	0.7%	54,605	14.7%
동 반(F-3)	52,651	54,893	56,736	58,750	3.5%	32,969	78.2%
재외동포(F-4)	555,968	557,935	555,364	555,822	0.1%	541,803	2.6%
영 주(F-5)	202,968	204,979	207,075	208,596	0.7%	188,964	10.4%
결혼이민(F-6)	148,376	148,997	149,642	150,391	0.5%	144,103	4.4%
방문취업(H-2)	93,302	93,267	92,136	92,321	0.2%	100,885	-8.5%
기 타	159,422	161,655	165,763	167,093	0.8%	152,970	9.2%

<표1-2> 출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년3월 월보

위 <표1-2> 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가능한 자격과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으로 구분해서 확인해볼 수가 있다. 우선, 2025년3월 현재까지 체류자격별현황 중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에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동반(F-3)이 있다. 총 688,780명으로 전체 체류 이주민 수의 25%정도가 된다. 전년도 2024년3월과 대비해 보면 동반(F-3)비자가 32,969명에서 58,750명으로 25,781명(78.5%)이 급

속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정활동(E-7)이 전년도 보다 19,204명이 증가한 증가세가 눈에 띈다. 특정활동(E-7)비자의 증가에 따라 가족 결합이 생겨 동반(F-3)비자 체류자도 증가하였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3) 체류 여성 이주민의 지속 증가

23.11.1. 기준 외국인 주민은 2,459,542명이며, 여성은 1,169,438명(47.5%)으로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여성의 규모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 전년 대비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

(단위 : 명)

구분	외국인주민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계	남	여	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23년	2,459,542	1,290,104	1,169,438	1,935,150	470,250	180,072	206,329	410,972	667,527	234,506	289,886
		52.5%	47.5%	78.7%	19.1%	7.3%	8.4%	16.7%	27.1%	9.5%	11.8%
'22년	2,258,248	1,159,287	1,098,961	1,752,346	403,139	175,756	189,397	397,581	586,473	223,825	282,077
		51.3%	48.7%	77.6%	17.9%	7.8%	8.4%	17.6%	26.0%	9.9%	12.5%
증감	201,294	130,817	70,477	182,804	67,111	4,316	16,932	13,391	81,054	10,681	7,809
	8.9%	11.3%	6.4%	10.4%	16.6%	2.5%	8.9%	3.4%	13.8%	4.8%	2.8%

<표1-3>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최근 3년간 성별·유형별 현황 > 국적취득하지 않은 이주민 기준

(단위 : 명)

유형	'21년			'22년			'23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 전체	1,649,967	906,507	743,460	1,752,346	968,784	783,562	1,935,150	1,093,129	842,021
외국인근로자	395,175	311,651	83,524	403,139	323,442	79,697	470,250	385,539	84,711
결혼이민자	174,632	36,820	137,812	175,756	39,174	136,582	180,072	40,092	139,980
유학생	156,607	74,048	82,559	189,397	86,309	103,088	206,329	94,073	112,256
외국국적동포	368,581	190,232	178,349	397,581	207,432	190,149	410,972	212,716	198,256
기타 외국인	554,972	293,756	261,216	586,473	312,427	274,046	667,527	360,709	306,818

<표1-4>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4) 미등록 체류자 현황

<미등록 외국인 체류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 도	총 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불 법 체류율
		소 계	등 록	거 소	단 기	
2015년	1,899,519	214,168	84,969	1,114	128,085	11.3%
2016년	2,049,441	208,971	75,241	941	132,789	10.2%
2017년	2,180,498	251,041	82,837	1,064	167,140	11.5%
2018년	2,367,607	355,126	90,067	1,015	264,044	15.0%
2019년	2,524,656	390,281	95,815	1,316	293,150	15.5%
2020년	2,036,075	392,196	108,665	1,674	281,857	19.3%
2021년	1,956,781	388,700	125,022	1,427	262,251	19.9%
2022년	2,245,912	411,270	138,013	3,725	269,532	18.3%
2023년	2,507,584	423,675	137,954	2,034	283,687	16.9%
2024년	2,650,783	397,522	134,580	2,124	260,818	15.0%
2024년 3월	2,594,936	419,040	136,742	1,952	280,346	16.1%
2025년 3월	2,722,108	388,412	132,892	2,190	253,330	14.3%
전년대비 증감률	4.9%	-7.3%	-2.8%	12.2%	-9.6%	-

<표1-5> 출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년3월 월보

2025년3월 현재 미등록 체류 이주민은 388,412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7.3%감소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장기적 미등록 이주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 집중합동 단속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도 곳곳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민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며, 일을 하고 있다. 등록되었던 이주민이 어떤 사정이 있어 미등록 체류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전체 이주민의 증감추이, 현황, 여성 이주민의 증가추세, 미등록 이주민의 현황을 행정안전부, 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주민 인구, 여성 이주민의 증가, 미등록 이주민의 증감 추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회는 무엇을 들었는가? 젠더, 권력, 인종의 작동으로 주변화에 놓여 있는 이주민, 그 주변인 주변에 놓여버린 여성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부의 합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까지 받아야 할 것 같다.

2. 양산시 지역 이주민 현황과 특징

1) 양산 이주민 현황

2023년 기준 경상남도 체류 이주민의 인구는 150,643명이고 전년도인 128,701명보다 21,942명 약 17% 증가하였다. 양산시의 이주민 인구는 13,045명(3.7%)으로 경상남도 전체 이주민 인구의 약 9%를 차지하였다.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다음 순으로 4번째로 많다. 양산시 전체 주민 인구수는 355,122명(2023년말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330명이 증가하였다. 이주민 증가가 전체 주민 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표2-1> , <표2-2>

< 시·도별 외국인주민 증감 현황(성별) >

(단위 : 명)

시·도	'22년(A)			'23년(B)			증감(B-A)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258,248	1,159,287	1,098,961	2,459,542	1,290,104	1,169,438	201,294	130,817	70,477
							8.9%	11.3%	6.4%
경남	128,701	74,204	54,497	150,643	91,311	59,332	21,942	17,107	4,835
							17.0%	23.1%	8.9%

<표2-1>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외국인주민 수 1만명 이상 시·군·구 현황(74개)>

(단위 : 명)

연 번	시·군·구	총인구수 (A)	외국인주민 수 (B)	외국인주민 비율 (B/A)
55	양산시	355,411	13,045	3.7%

<표2-2>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양산시 산업 현황

규모별

구분	합계	300인 이상	50인~299인	49인 이하
업체수	2,328	12	173	2,143
종업원수	52,100	9,981	16,859	25,260

<표2-3> 출처: 양산시 기업체 현황 자료 사용 2022.1.1.기준

양산시 등록 2,328개 업체 중 49인 이하 업체는 2,143개이었고 92%를 차지하고 있다. 30인 이하 혹은 영세사업장(5인 이하)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조사가 필요하지만 90%이상이 중소기업인 양산시의 현 산업 현황에서 이주민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다. 정부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권으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4년10개월 만기되어도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1년 연장을 할 수 있는 일시적 제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지금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대책으로 '지역특성화 비자' 허가 제도도 실행되고 있다.

3)이주민 지원 체계의 미비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경우는 최장 9년8개월까지 체류가능하고 이제 F계열 비자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도입 규모가 늘고 있는 특정활동(E7)의 경우 취업요건을 갖추면 계속적인 체류연장이 가능하고 2023년부터9월25부터 숙련인력 K-POINT (E7-4) 35,000명 선발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필요로 이주민들이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체류로 머무를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을 한다. 시지자체의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 외국인근로자는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함께 살아야 할 실정이다.

양산시는 현재 중앙·지방 재정 활동에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설이 하나가 있고 결혼이주여성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가 하나 있다.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함께하는세상,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과 사단법인 희망웅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이주민의 노동권리를 보장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시설은 없다.

경상남도에서 창원, 김해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고 경상남도 남동부에 위치해 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시의 중간에 있다 보니 특성으로 부·울·경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는 시다. 양산시의 공단이 많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현

재 산업현황을 고려했을 때 이주민을 향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균형이 있는 노동생활 만들기가 필요하다.

3.조사 대상과 방법

1) 조사 대상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양산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이다. 이번에 노동·안전에 포커스를 두고 총 6개나라 27명대상으로 취업비자 노동자, 취업 제한 노동자, 미등록 노동자 그리고 한국국적 취득 노동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대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3-1>

< 인터뷰 참가자 명단>

번호	닉네임명	나이	비자	한국 거주	출신국
1	해피	54세	F6	22년	필리핀
2	린	42세	국적	19년	필리핀
3	행복	27세	E9	10개월	필리핀
4	러브	34세	미등록	9년	필리핀
5	리스	30세	미등록	8년	필리핀
6	진주	37세	국적	16년	필리핀
7	LAN	37세	국적	15년	베트남
8	XIN	40세	국적	18년	베트남
9	HAI	31세	F5	12년	베트남
10	NONG	55세	미등록	9년	베트남
11	HUA	50세	F5	15년	중국
12	MEI	44세	국적	15년	중국
13	LIN	44세	미등록	2년	중국
14	FENG	52세	F2	1년	중국
15	YAN	48세	F5	11년	중국
16	HONG	50세	미등록	18년	중국
17	나비	37세	국적	19년	캄보디아
18	해바라기	33세	E9	2년	캄보디아
19	다이아몬드	43세	미등록	14년	캄보디아
20	달	29세	E9	2년	캄보디아
21	지혜	32세	E9	3년	캄보디아
22	BE	43세	미등록	16년	태국
23	GUANG	35세	미등록	7년	태국
24	NENG	43세	미등록	7년	태국

25	NA	27세	F3	6년	네팔
26	THI	29세	F3	2년	네팔
27	GIN	40세	국적	15년	네팔

〈표3-1〉

2)조사 방법

– 액션리서치(연구자와 현장 참여자 함께 참여하여, 실천과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현장의 변화를 추구하는 참여적·협력적 연구방법이다.)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즉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소모임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주여성노동자는 직접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도급제노동자 등이 있다.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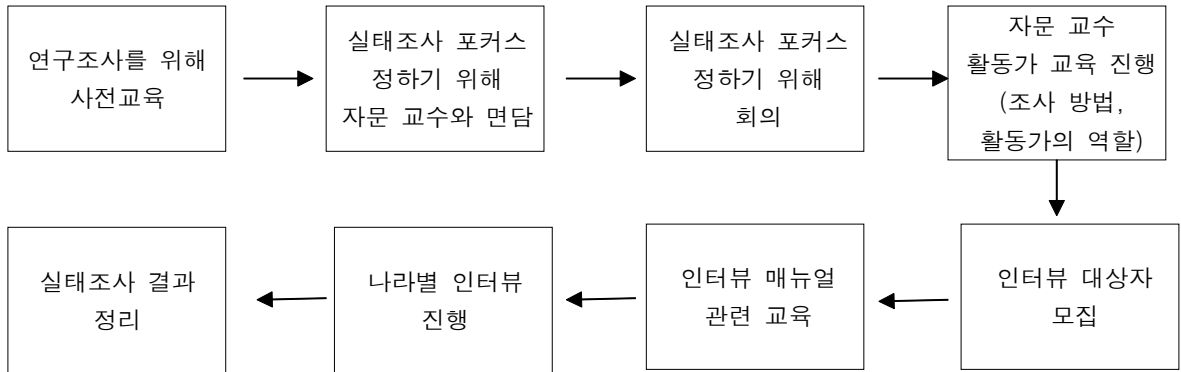
– 노동안전 실태조사는 양산이주여성노동인권활동가 10명이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와 연구 주제 선정 방법 등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고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자체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선정, 인터뷰 진행 장소와 날짜 등 구체적인 내용 정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실태조사에 있어 전문인력의 개입보다는 활동가들의 주도적 활동에 중심을 두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의 노고가 담겨져 있다. 실태조사진행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3-2〉

〈 실태조사 진행자 명단 〉

번호	이름	현 체류자격	출신국	직업
1	손파	국적	중국	요리사
2	이재희	국적	중국	개인사업
3	윤려화	국적	중국	보험설계사
4	장환희	국적	베트남	사원
5	도티란	국적	베트남	사원
6	부파	F6	태국	통역사
7	히로미	영주권	일본	사회복지사
8	양유정	국적	필리핀	주부
9	최수연	국적	캄보디아	주부
10	박수진	국적	네팔	사원

〈표3-2〉

노동안전 실태조사 진행 과정



3)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기본 정보	- 한국 입국 시기 및 체류 기간, 체류 자격 - 가족관계 및 동거 여부
노동 조건	- 취업경로, 근무내용, 근무형태 - 노동시간 - 고용형태 -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노동 안전	- 사업장 위험 요소 - 안전교육 유무 - 작업 위험 요소
일상생활 안전	- 기숙사 문제 - 체류 자격 문제 - 건강보험 부재의 문제 - 성희롱의 문제

4)조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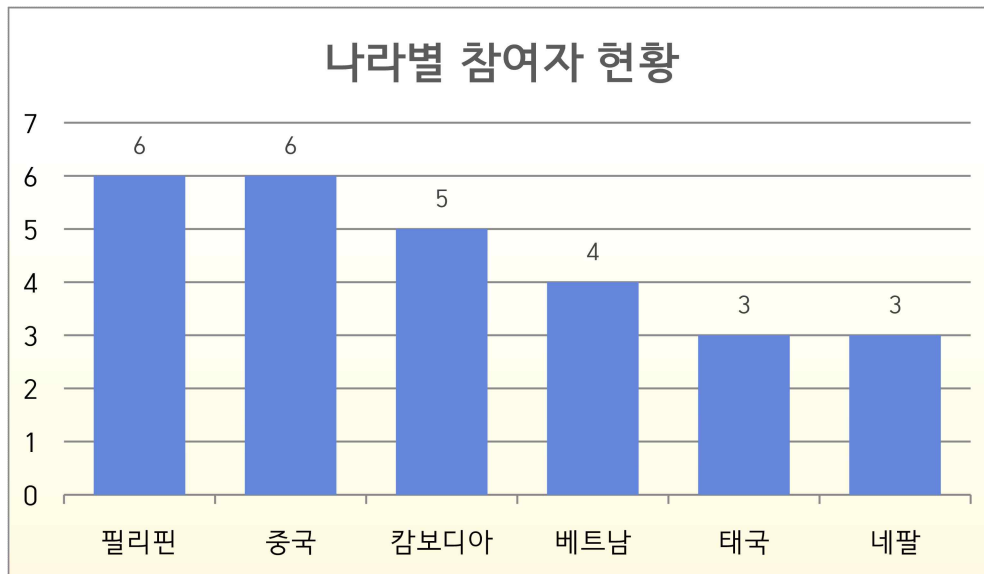
2025년3월1일부터 2025년4월10일 사이에 진행하였다.

4.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참여자 기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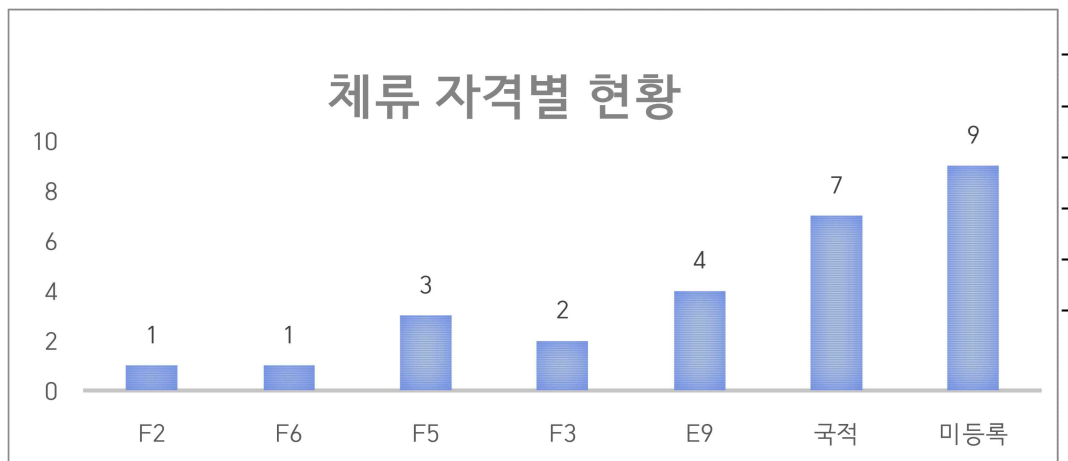
- 참여 나라

필리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네팔 총 6개 나라 출신의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실태조사에 응하였다. 필리핀 6명, 중국 6명, 캄보디아 5명, 베트남 4명, 태국 3명, 네팔 3명 총 27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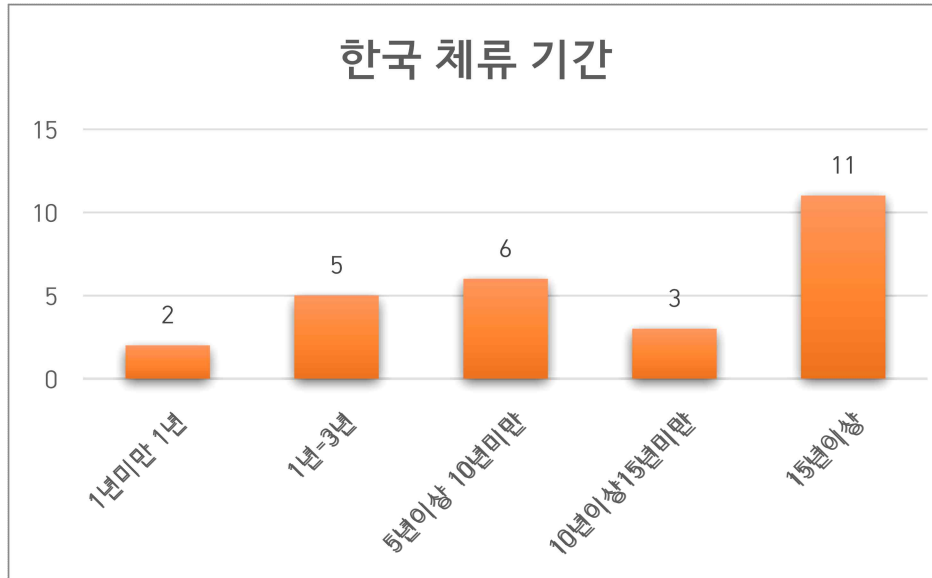
- 체류 자격별 현황

미등록 이주민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적 취득자 7명, E9 비자 4명, F5 영주권 이주민 3명, 동반 F3 비자 2명, 결혼비자 F6와 F2 각 1명이다.



- 체류 기간

조사에 참여한 이주여성노동자들 중 모두 장기 체류자이며, 15년이상 체류자가 11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1년 및 1년미만 체류자는 딱 2명이다.



- 혼인 및 자녀 유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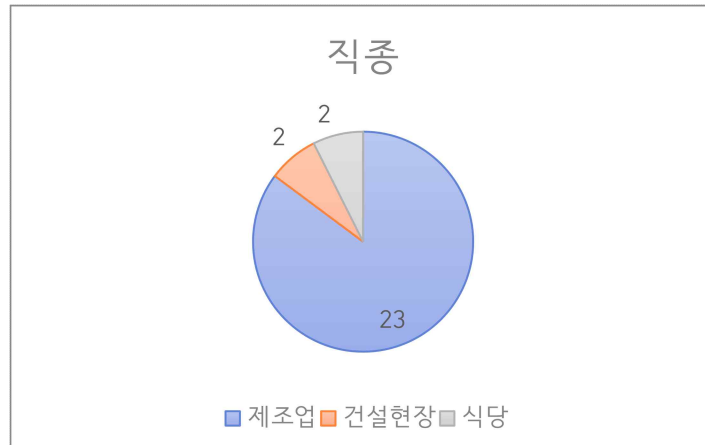
조사에 참여한 이주여성노동자 27명 가운데 미혼은 3명이고 이혼은 5명이고 사별이 1명이 있다. 그 중 5명이 자녀가 없다. 자녀가 있지만 따로 사는 경우는 10명이다. 특히 미등록 체류자 같은 경우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녀와 따로 살아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일을 하기 위해 본국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캄보디아 다이아몬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셋 아이의 엄마라 어깨가 무거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괴로울 때가 많아요.”

태국 GUANG: “작은 아들은 한국에서 낳았어요. 이제 태국에 보낸지 2개월이 됐어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 하는 일(직종)

조사에 참여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거의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27명 중 2명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2명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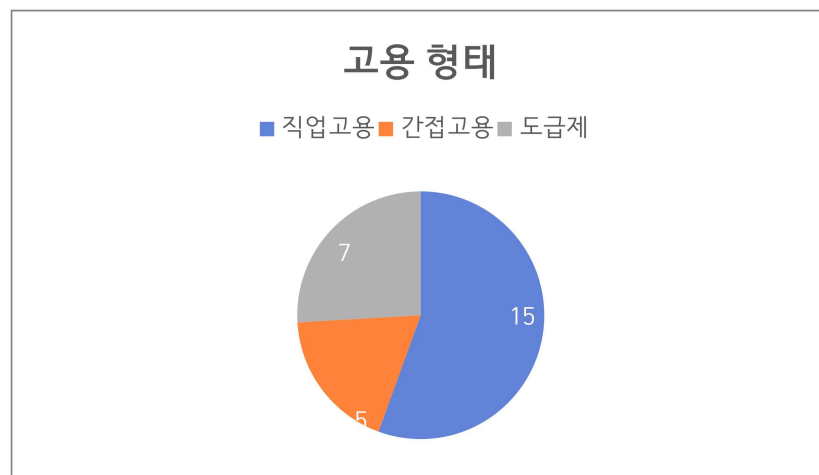
- 구직 경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2명은 남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1명은 타일 작업, 1명은 현장 청소일을 하고 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LIN씨는 동생 지인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고 NONG씨는 사위가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일을 찾아주었다.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23명 중 지인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된 경우는 대부분이며, 그중 5명은 중개업체의 소개로 일을 하고 있다.

2) 사업장 안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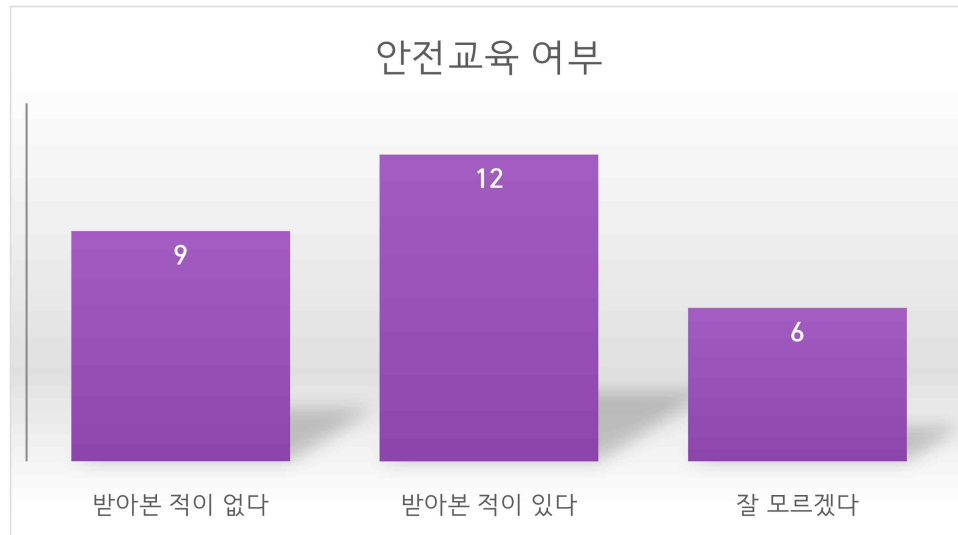
- 고용형태

조사에 참여한 이주여성 27명 중 회사와 직접 계약한 경우는 15명이며, 이는 전체 참여자 수의 55%에 불과하며, 7명은 도급제로 일을 하며,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내었으며, 5명은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다.



- 안전교육의 부재

미등록 체류 중인 9명의 참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하였다.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는다고 답하는 자는 7명이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하는 경우는 5명이고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경우는 6명이었다.



- 사업장 공간의 위험 요소

사업장 건물 안에 있는 출입구 부족, 통풍이 잘 안되고 밀폐된 작업 공간, 먼지가 많아 숨을 쉬기 어려운 작업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호소하여 이것이 가지고 오는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 회사 안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화장실과 샤워실이 기숙사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대해 호소하였다.

베트남 LAN: “저는 쇠를 녹여서주물, 금형 등 일을 하는데 생산된 쇠의 성분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공간에 작은 환풍기만 달려있고 창문이 없어서 숨쉬는 게 힘들 때가 있다. 환풍기 청소나 에어컨 청소가 안 돼서 먼지가 많고 환경이 아주 안 좋다.”

태국 GUANG, NENG: “회사에 불이 나면 같은 공간에 사람이 많고 나가는 길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안에서 모두 다 타 죽을 것 같다. 출입구가 딱 하나이고 다른 문이 있어도 앞에서 물건을 많이 쌓여 놓아 실제 통로로 볼 수가 없다.”

태국 BE: “일을 할 때 자동차부품 같은 경우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근데 너무 덥고 일을 하는 공간에 통풍이 잘 안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때가 많다. 냄새가 나긴 하는데 숨을 못 쉬는 것보다는 나아서 참는다.”

- 작업의 위험 요소

여성의 신체에 맞지 않는 작업복, 작업화로 인하여 겪는 불편함에서부터 키 높이에 닿을 수 없는 기계를 조작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발판 등에 이르기 까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과 안전에 노란불이 켜져 있다.

필리핀 해피:“회사에서 남자하고 같이 일을 한다. 용접 복장은 약 3KG정도 된다. 바지까지 입으면 너무 무거워서 용접용 바지를 입지 않을 때가 많다.회사 측 제공 안전화는 여자인 나에게 무거워서 신고 일하기가 힘들어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회사에 요구를 했는데 소용이 없다.”

필리핀 린:“기계가 다 높으니까 내가 기계에 맞추어 일을 하기 위해 발판을 따로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 준비를 해주어야 하는 발판을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달:“에어컨, 세탁기 등 조립을 하는 일을 한다. 계약서에 안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용접일도 같이 한다. 용접일을 따로 배우지 못하였다. 용접할 때 안경과 안전 모자가 없어서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눈에 들어갈 때가 많고 되게 위험하다.”

중국 YAN:“건설현장에서 타일을 붙이는 일을 하고 있다. 타일 같은 것 작업할 때 먼지가 많이 난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눈에 얼굴에 늘 먼지가 많다. 계속 타일 일을 하면 폐에 안 좋을 것 같다.”

캄보디아 달:“화장실과 목욕하는 곳이 밖에 있어서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너무 힘들다.”

캄보디아 해바라기:“저녁에 화장실에 갈 때 너무 무섭다.”

3) 노동조건의 불안전성

- 간접계약의 문제

양산지역 특성상 작은 사업장이 많이 배포되어 있고 사업주들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조사 참여 이주여성노동자 27명 중 5명이 중개업체의 소개로 일을 하고 있다. 일자리 소개를 해주는 대가로 매월 월급에서 4.5%~10% 공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중개업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

에서 계약을 하게 되고 퇴직금 받는데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

태국 GUANG:“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중개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매월 월급에서 4.5%공제를 받는다. 이것은 중개업체한테 주는 수수료다.”

캄보디아 다이아몬드:“ 요즘은 회사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남편하고 같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오래 다녔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개업체와 회사중 어느 쪽에서 줘야 하는지 아직 모른다.”

네팔 NA:“ 저는 그냥 회사에 일을 하러 갔는데 회사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싸인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알았습니다. 그건 중개업체인 것을... 근데 몇 개월 있다가 중개업체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하니까 싸인을 하라고 하니 했어요. 그런데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여러 개 중개업체하고 계약을 한거예요.”

- 도급제의 문제

조사에 참여하는 이주여성노동자 27명 중 7명이 도급제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을 하고 있다. 노동자가 사장님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하려 하는 산업구조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 위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도급제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일을 하는 만큼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 보통 새벽 4, 5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한다.

베트남 XIN:“ 자동차 부품 조립,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고 평균 근무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이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다.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사장이 치료비 내준다. 근데 몇 년전에 오른쪽 어깨 인대 파열로 수술했는데 제 자비로 치료하였다.”

베트남 HAI:“ 자동차 부품(고무)사상하고 본드 작업을 하는데 제품 개당 단가로 임금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을 한다. 점심을 시켜서 먹는데 다 식어서 억지로 먹을 때가 많다.”

필리핀 러브:“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5시까지 일을 한다. 중간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 일을 빨리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하루에 작업을 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작업량을 맞추어야 한다.”

중국 HUA: “저는 도급제로 일을 하고 있다. 매월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 나의 퇴직금을 나의 월급에서 매월 빼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4) 체류 자격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 미등록 체류자의 어려움

조사 참여한 이주여성노동자 27명 중 9명이 미등록 체류 중이며, 체류 자격의 불안정으로 늘 위축이 되어 있고 노동의 권리와 거리가 멀기만 한다. 현재 법무부의 집중 단속으로 인하여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공포속에서 살고 있다.

필리핀 러브: “저는 야간만 해요. 낮에는 무서워서 밖에 잘 못 나가요. 1년 365일 야간만 하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은 덜 힘들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제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단속하게 되면 제 파트너와 아이는 어떻게 되는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태국 BE: “지금 단속 너무 심하게 해요. 동영상을 보면 진짜 화가 나요.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데 와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사람을 데려요. 저도 단속에 걸릴 뻔했다. 다행히 조용히 후문으로 도망쳐 빠져나와 친구의 도움으로 안전을 취했다.”

네팔 NA: “저는 원래 일을 하면 안 되는 비자인데 생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일을 하다가 잡혀갈 뻔했다. 저는 창고에 숨어서 혼자 너무 무서웠다. 옆에 잡혀간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태국 NENG: “관리자가 아닌 사람도 누구나 와서 일을 시킨다.”

- 병원 진료의 문제

미등록 체류 중 이주민의 경우 건강보험이 없다 보니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은 것이 나중에 큰 병으로 옮겨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여성노동자 같은 경우 아이의 임신과 출산에 있어 산부인과 진료 수요가 많지만 양산에서는 산부인과와 부족과 병원비의 불투명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태국 GUANG: “둘째 아이는 한국에서 낳았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병원비는 500만원 넘게 나왔다. 병원비도 너무 비싸고 양산에서는 갈 병원이 없는 것 같다.”

태국 BE: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참다가 결국 크게 아프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저번주에 태국분 한 분이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태국 NENG: “다른데 희년의료공제회가 있는데 거기는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양산에서는 이로 병원이 없다. 양산에서도 이런 의료체계를 만들면 좋겠다.”

5) 성희롱의 문제

조사에 참여한 이주여성노동자 27명 중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7명이다. 20명 중에 경험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답해주는 경우는 9명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이주여성들이 경험한 성희롱은 주로 원하지 않는 신체적 터치와 야한 농담이다. 성희롱을 당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적절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정보의 부족, 체류자격의 불안으로 그냥 참는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베트남 LAN: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흔히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대응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 뭘 이야기하면 그냥 농담이라 넘긴다.”

태국 NENG: “네, 몸을 살짝 만지거나 손을 잡는 경우가 있다. 사실은 대응을 못하고 있다.”

6) 기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근로시간단축 제도 신청의 어려움

조사에 참여한 이주여성노동자 27명 중 미등록 9명을 제외하고 16명 중에 딱 1명 출산휴가 제도를 이용하였다. 임신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때 육아 휴직제도 이용할 생각도 없었다. 보통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만다. 육아관계로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선례가 없어서 첫 번째가 되기 쉽지 않다.

캄보디아 해피: “지금 출산휴가 제도 이용 중이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사장님의 눈치를 보게 된다.”

베트남 LAN: “지금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이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잘 몰랐고 그리고 신청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이런 제도관련 내용들을 나라별 번

역해서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

결론:

1. 요약 및 제안

1) 조사 요약

양산지역 이주여성노동자 대상으로 한 노동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실태조사에 참여한 총 6개나라 출신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취업가능한 비자와 취업을 허용하지 않은 비자의 틀을 깨고 모두 실질적인 삶이 영역에서 이주여성‘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15년 이상 된 사람은 11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41%에 도달하였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는 20명에 이르렀다. 즉 전체 참여자의 74%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 자녀가 있는 경우는 80%이다. 그러나 22명 50% 이상이 자녀와 떨어져 따로 살고 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는 가족과 동반할 수 없는 비자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 사업장의 물리적 안전 문제를 호소하였다. 일을 하는 공간은 밀폐가 되어 있거나 공장은 크고 사람은 많은데 출입구의 부족으로 위험 상황이 닥치면 도피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의 위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작업장 안전 점검 실시가 시급해 보인다.

– 여성노동자의 신체에 맞지 않은 기계, 설비 그리고 작업복, 작업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이에 산업재해 발생에 있어 무시하지 못하는 원인이 제공되기도 하기 때문에 남성과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 적지 않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이 도급제를 선호하고 노동자인데도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개인사장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일을 하고 약 3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사대보험의 적용, 향후 퇴직금의 문제 등 다양한 복합적 문제의 총합체이다. 노동시간에 비하면 임

금수준이 큰 금액이 아닌데도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선호도에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 중개업체 간접 고용의 산업구조 문제에 있어 문제의식과 제도적 보호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유래할 수 있는 문제를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신분의 불안정으로 임신·출산 시 병원비지출 문제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미등록 체류자라서 당연히 많은 병원비를 내어야 하는 현재 상황에 있어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더 나아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의 문제는 함께 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성희롱’은 텍스트 자체는 익숙하지 않지만 일상이나 일터에서는 대부분이 겪고 있는 애매한 문제로 인식되어 있다. 불안정한 체류 신분인 이주민여성은 물론 안정한 체류자격 인데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의 취약성으로 인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2) 제안

- 양산시의 이주여성노동자 인권 보호 및 권리 추진에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양산시 산업구조 실태조사 내용을 통해 중개업체 통한 간접계약 문제 파악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연대 필요.

- 이주여성노동자들이 모성권 보장을 위해 의료네트워크 추진 필요와 동시에 시지자체 제도적 보호 필요.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극 실시 사업장 장려 제도 마련.

- 가족 방문비자, 동반가족비자도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 필요

-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신고처 및 신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수적 실시 필요

2.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 이주노동, 이주여성 노동, 미등록 이주노동, 미등록 이주여성 노동 등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때 주체가 누구인가?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이주여성노동자의 실태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실태는 똑같이 중요하다. 생물학적 이분법으로 ‘남성’과 ‘여성’의 분리보다는 이주(여성)노동의 문제에는 다방면적 교차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이주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결국 이주여성에게만 속하지 않으며, 전체 이주노동자의 문제, 전체 여성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

- 이주민, 선주민 우리는 모두의 삶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차별이 결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다. 현실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변화가 계속 있을 것이다. 다소 느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함께 하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민, 이주민 활동가, 선주민(활동가) 등이 각자의 역할을 고민을 하여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 이주해서 이주민, 한국에서 태어나서 선주민, 이러한 무조건적 이분법적 구분이 늘 문제의 기원이라고 생각한다. 돌과 바람과 물이 서로 협력하여 이 땅을 형성하는 것처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삶은 그 자체가 조화로워야 한다.

네팔 여성 노동자 심층 면접

날짜: 2025년 3월 2일 (일)

장소: 양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1층 커피숍

인터뷰 진행자: 박수진, 손지연

참가자:

성명	나이	비자	한국 거주
NA	27세	F-3	6년
THI	29세	F-3	1년 6개월
GIN	38세	한국 국적 취득	15년

주요주제:

-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
- 노동 시장 내 중개업체 개입의 증가에 따른 노동 인권 문제
- 출신 배경 및 비자 종류가 미치는 고용 계약에 있어서의 제한과 인간적 고충

내용:

1. 자기 소개 -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비유를 들어 소개를 해본다.

(예: 저는 ‘물’ 같은 사람입니다.)

■NA: 나는 ‘러블리’ 한 사람입니다. 특히 환하게 웃는 얼굴에서 사랑스러움이 제일 크게 느껴지고 이런 나의 모습을 나의 남편은 많이 좋아해 줍니다.

■THI: 나는 ‘쇠’ 같은 사람입니다. 겉에서 보면 작고 약해 보이지만 나의 마음 속에는 쇠와 같은 단단함이 있어 모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받아들입니다.

■GIN: 저는 ‘자유’ 입니다. 항상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고 지금은 생각해 보면 예전에 비해 훨씬 ‘나’ 답게,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평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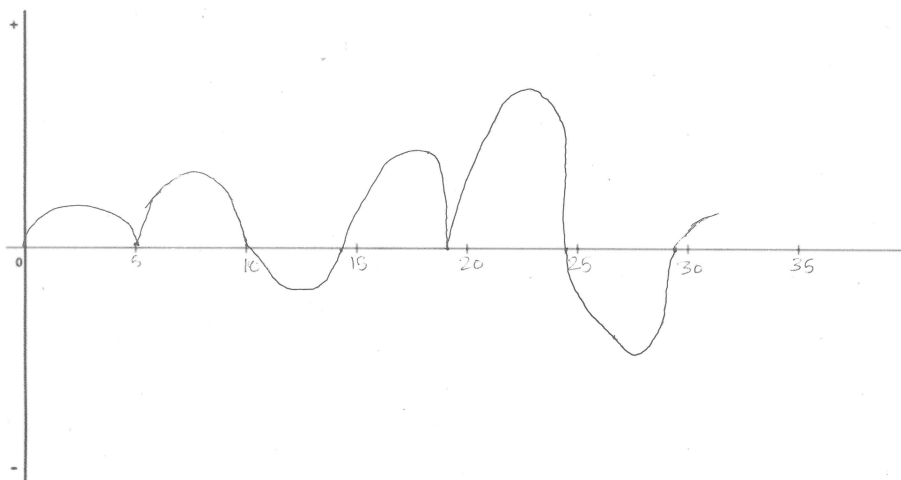
2. 인생 그래프를 그려 본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중요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다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A: 네팔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까지 진학을 하였습니다. 10대 때 크게 다쳐 잠시 학업을 쉬었지만 늘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공부를 향한 열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네팔 문화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기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대학 공부를 중단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대로 된 신혼 생활은 저희 부부에게는 불가능하였고 결혼 이후 몇 주가 지나 한국에서 이주 노동을 하고 있던 남편은 다시 고향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잠시 외롭기도 하였지만 남편이 저와 함께 한국에서 살기 위해 비자를 바꾸고자 여

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기다림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도 한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 받았고 경남 양산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저와 남편은 새로운 기분으로 진짜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건강한 남자 아이가 새 식구로 태어났고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바쁘고 힘든 노동 속에서도 자상한 남편은 저만을 위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었고 그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갈 수 있었고 처음 해 보는 육아도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의 사장님의 아들이 부당한 이유로 남편을 해고하였고 남편의 비자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비자도 유지하고 새 회사에 취직도 하였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남편 혼자만의 벌이로 세 식구가 한국에서 살고 네팔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도 보태는 현실 속에서 혼자 애쓰는 남편에게 미안하였고 저도 같이 돈을 벌고 싶었지만 F-3 비자는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필요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들도 어느덧 자라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있었고 지인의 소개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넘게,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서서 일을 해 돈도 벌어야 하고 아들도 챙겨야 하는 생활이 너무 힘들고 벅찼지만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조금은 나아졌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들이닥친 출입국 단속으로 일을 그만두었고 단속반원에 의해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3시간 넘게 사장님이 급하게 숨겨 준 공장 내 구석진 공간에서 들쭉날쭉 공포에 떨었던 기억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남편 회사에 일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생계가 걱정입니다. 저는 미래를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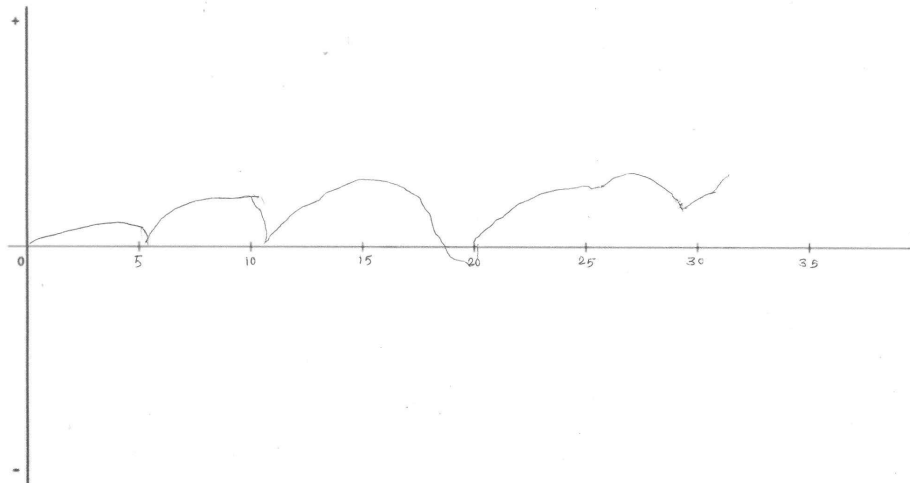
나의 인생 곡선 - 비파나 보세콜



■THI: 20살이 조금 지나 결혼을 하였고 아이가 1명 있는데 지금은 아이 혼자 네팔에 있고 시부모님이 키워 주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10년 이상 이주 노동을 하고 있는 남편의 배우자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야 하기에 정말 슬펐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네팔에서 커 가는 게 더 맞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한국은 좋습니다. 사람도 좋고 나라의 법도 좋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물가는 네팔보다 훨씬 비싸고 돈을 벌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힘들지만 보다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영감을 주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해 줍니다. 미혼일 때 네팔에서 종이 만드는 회사의 경리로 1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인해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항상 제 아이가 그림고 보고 싶어 한국 생활이 힘들기도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에 언젠가 아이와 함께 하는 미래를 꿈꾸며 매일 휴대폰 영상 통화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보다는 더 조건이 좋은 비자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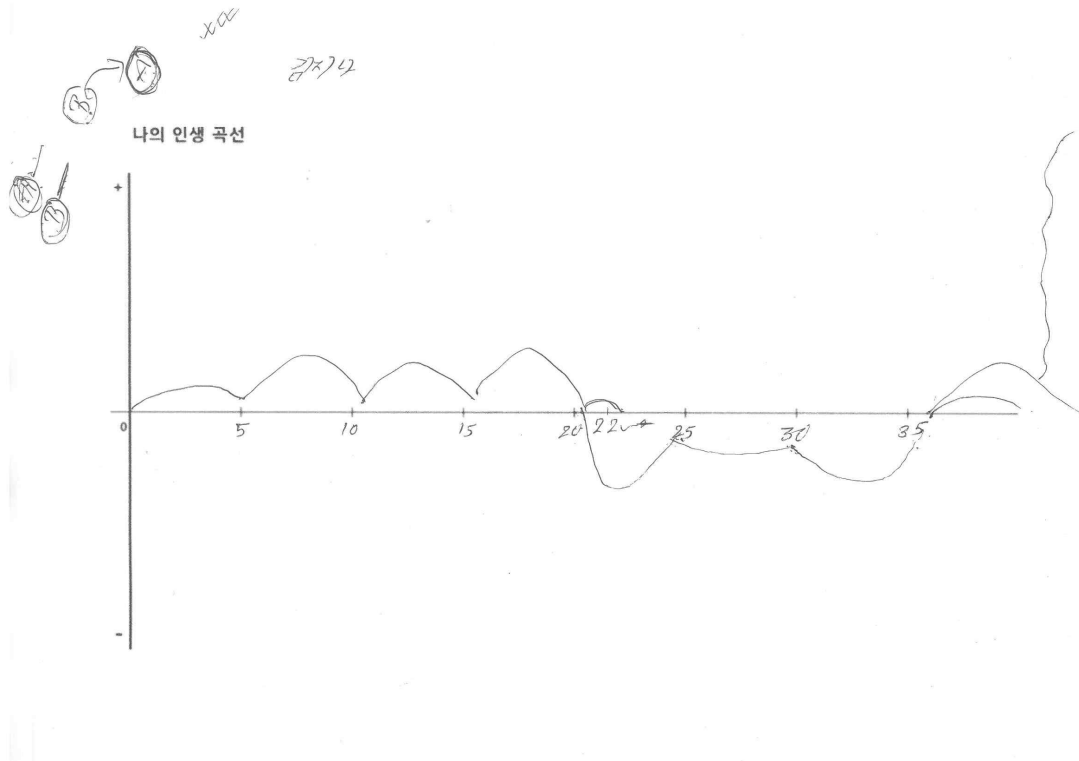
귀련

나의 인생 곡선



■GIN: 2011년에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전공이었는데 등록금 마련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1년 정도 학업을 한 이후 한국에서의 장기간 체류가 과연 보장될 수 있을까, 돈 때문에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팔 여성으로서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 나이대였습니다. 결국 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였고 꿈꾸던 유학 생활도 포기하고 2012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해엔 첫 출산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양육비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갔고 저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한 곳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었고 자녀 양육과 공장 노동 일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벽은 사라지고 제 인생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사와 회사일의 무한 반복,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만 한단 부담감으로만 가득 차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

했던 시기를 지나 아이들도 스스로를 챙길 줄 알만큼 성장하였고 이제는 조금이지만 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주어졌고 여전히 일은 하고 있지만 가끔 좋아하는 여행도 다니며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3.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

-근무 업종-

- 제조업) 자동차 엔진 부품 검사
-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 플라스틱 공장
- 제조업) 자동차 부품 검사

-직접 고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의 여부-

- 중개업체(인력 공급 업체) 통해 근무 시작 / 근로계약서 작성 無
- 중개업체(인력 공급 업체) 통해 근무 시작 / 근로계약서 작성 無
- 워크넷 통해 취업했을 땐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근로계약서 작성 有) 가사원 소개로 취업했을 땐 직접 고용이었어도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음(근로계약서 작성 無)

-급여 수령 방식-

- 시급제 (최저시급 적용)
- 시급제 (최저시급 적용)
- 시급제 (최저시급 적용)

-급여명세서 전달 및 임금 지급 주체-

- 중개업체
- 중개업체

○직접 고용한 회사

-노동 시장 내 중개업체 개입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

○중개업체 수수료 과다 공제 (현재 13% 수준)

○퇴직금 지급 회피: ①중개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구조를 악용하여 지급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않음 ②한 노동자를 두고 계속근로기간 중에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체 여러 개가 개입하면서 해당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넘지 않도록 꼼수를 씀

-안전 교육 여부-

○한국어 안전 교육을 진행하였고 한국어가 능숙한 네팔 동료 노동자가 옆에서 통역을 해 주어 교육 집중도는 좋았음

○마찬가지로 전체 교육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나 네팔 동료 노동자의 통역으로 교육 이해도는 괜찮았음

○1달에 1번씩 사무실에 모여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으며 관련 자료도 배포되었지만 당시엔 한국어를 잘 몰라 개인적으로 번역기를 사용하였음

-작업복, 안전화 등 보호구 제공 여부-

○특정 기름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났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스크 등과 같은 보호 장치는 제공 받지 못하였음

○조끼로 된 작업복 1개를 받았지만 중개업체는 임금에서 작업복 비용 명목으로 3만 원을 공제함

○작업용 조끼, 장갑, 마스크, 안전화가 제공됨

-작업 환경 및 기타 환경-

○업무 관련 시설적 문제는 크게 느끼지 못했으나 휴게 공간과 같은 시설의 부재는 불편하고 아쉬웠음

○산재 발생과 관련하여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듯한 느낌이 듦

○한국어가 서툰 어린 나이대의 여성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 중년 여성 노동자들이 보내는 불쾌한 시선과 이유 없는 무시를 느낄 때면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가?’ 생각이 들고 그냥 나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고, 처음 맡은 일이 서투를 때마다 상대방은 너무 불친절하게 나를 대하여 말도 함부로 하고 업무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음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업무 자리가 거의 매일 바뀌어 특정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고 싶은 개인적 욕심이 있어도 일을 배울 수가 없음

○관리자 역할의 한국 남성 노동자들이 행하는 손으로 찌르기, 만지기, 꼬집기 등과 같은 신체 접촉이 불쾌하고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도 회사 측에 이를 말하기가 참 힘들

○사업장 내 일이 줄어 인력 수가 많다고 판단될 때 바로 퇴사를 권유하는 가장 쉬운 대상이 외국인임

-마무리-

○인간 생활 유지에 있어 경제 활동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부여된 비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이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길 희망함

○이주민 개인의 노력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에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취업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주 노동자는 공장에서만 일한다는 제한적 인식이 너무 아쉬움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한국에 정착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구인 중인 사업장에 전화 문의를 할 때 말투에서 느껴 외국인이건 전화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경험들을 통해 이주민을 향한 한국 사회의 인식적 변화가 여전히 더딤을 체험하게 됨

베트남 여성노동자 심층면접

날짜: 2025년3월2일(일)

장소: 양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4층 다목적실

인터뷰 진행자: 장환희, 도티란

참가자 및 내용:

1. LAN씨(1987년생): 결혼 이주 15년, 중2/초5 자녀, 현재 국적취득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경제적 능력 전혀 없었고 남편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준다고 말하라고 했는데 시부모와 같이 살면서 그런 걸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엄청 힘들었다. 다문화센터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눈을 많이 떴다.

내가 하는 일:

산막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2019년 12월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입사하였다. 7시 집에서 나와 8시 20분쯤 일 시작, 17시까지 기본근무, 잔업 19:30까지 주 2회 정도이다. 생산 기사로 일하는데 생산 품질 분석과 생산량 관리 등의 일을 한다. 쇠를 녹여서 주물, 금형 일을 하는데 생산된 쇠의 성분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공간에 작은 환풍기만 달려 있고 창문이 없어서 숨 쉬는 게 힘들 때가 있다. 환풍기 청소나 에어컨 청소가 안 돼서 먼지가 많고 환경이 안 좋다.

현장에는 60~70명 정도 일하는데 40%는 한국 사람, 60%는 이주민이다. 이주민 중에도 반은 E9이고 반은 미등록인데 미등록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상여금, 퇴직금 같은 거 없다. 보너스가 300%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회사 어렵다고 해서 100%를 삭감했고 개인이 동의 서명을 했다.

임금은 최저임금이다. 회사에서 요즘 일이 없어 금요일 휴무하는데 직원들에게 연차로 대체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연차가 마이너스이다.

2. XIN씨(1986년생): 18세에 결혼 이주, 대학2년/고등학생 자녀

남편이 아파서 10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심. 남편 간병하고 일하려 다니느라 많이 힘들었음.

내가 하는 일:

일하는 곳은 사장이 4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고 최근 일이 없어서 작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자동차 부품 조립,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고 평균 근무 시간은 10~12시간 정도, 사업자 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다치면 사장이 치료비는 내준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오른쪽 어깨 인대 파열로 수술했는데 그건 자비(실비)로 치료하였다. 세금도 사장이 내주고 개인사업자라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급제로 (최저시급보다 많이 책정) 임금을 받고 월 평균 3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처음에 사장이 개인사업자 할 건지 선택하라고 해서 세금 많이 떼면 손에 떨어지는 거 적으니까 사업자 한다고 했다. 13년 정도 일했다. 나중에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3. HAI씨(1994년생): 19세 결혼 이주, 자녀 1명

20세에 아기 출산하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 엄청 힘들었다.

내가 하는 일: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한 도급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에 일이 없어 다른 회사로 옮겨 시급제로 일하다가 다시 도급제 회사에 들어가서 개인사업자 일하고 있다. 지금 일하는 회사에는 한국 사람 90%, 이주민 10%인데 사람에 따라 잘해주기도 하고 못 해주기도 하지만 외국인이라 차별하는 건 크게 없다. **자동차 부품(고무) 사상하고 본드 작업을 하는데 제품 개당 단가로 임금 계산하기 때문에 많이 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작은 체격인 저에게) 제품을 많이 들어 올리게 되는 게 무척 힘들다.** 일은 보통 10시간 정도이고 어떨 때는 12시간 하기도 한다.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보다 도급제로 일하는 사람이 잔업 더 많이 하게 된다. 점심밥은 시켜서 먹는데 다 식어서 오고 너무 맛없어 억지로 먹는다.

4. NONG(1970년생): 가족 방문으로 한국에 입국, 현재 미등록으로 일을 함.

내가 하는 일: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그냥 외손자를 보러 왔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 사위의 사정에 돈을 벌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처음엔 가사원을 통해 농사일을 했다가 식당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지금 한 식당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보통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오후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낼 수가 있었다. 몇 년 동안 식당 일을 계속하다 보니 어깨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를 받았다. **나중에 수술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이 없어 걱정이** 다. 나는 한국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을 한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한계가 온 것 같다. 온몸이 아프기 때문이다. 딸 집에 왔는데도 비자 연장 신청 허가가 계속 안 나서 출입국에 확인 전화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심사 중이라 한다. 이에 나는 결국 미등록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클로징:

- 배터리 회사의 화재 사고를 뉴스에서 봤다. 우리 회사도 환풍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면 좋겠다. 사업장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 가족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했으면 좋겠다.
- 딸 집에 초청이 되어 와도 일 못하게 되어 있어서 부모들이 몰래 일하기도 하는데 너무 불안하게 일해야 하니 좀 바뀌면 좋겠다.
- 미등록 노동자라서 모든 복리후생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똑같이 해주면 좋겠다.
- 오랜만에 나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서 좋았다. 이 작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나에게 에너지를 넣어준 것 같다.

중국 여성노동자 심층면접

날짜: 2025년3월2일(일)

장소: 양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4층 다목적실

인터뷰 진행자: 손파, 윤려화

참가자:

성명	나이	비자	한국거주
HUA	50	F5	15년
MEI	44	국적취득	15년
LIN	44	미등록	2년
FENG	52	F2	1년
YAN	48	F5	11년
HONG	50	미등록	18년

주요주제:

-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
- 미등록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필요성
- 노동자들의 권리 알기의 중요성

내용:

1. HUA:

결혼하고 한국에 옴. 현재 15년차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두 아들이 있고 큰 아들은 다 컸다. 작은 아들은 지금 초등 3학년이다. 지금 15년차로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내가 하는 일:

나는 도급제 회사에서 일을 한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번다. 지금 작은 아들이 어려서 자주 아프고 또한 손이 많이 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서 도급제를 선택하였다. 일이 있을 때 내가 미리 가서 일을 하고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된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니까 여름이 되면 40도, 50도로 올라가 소금물을 마시면서 일을 한다. 어떨 때는 기계 몇 개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니까 어지러울 때가 있다. 여름에는 정말 위험한 것 같다. 쉽게 탈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2. MEI:

중국 조선족이다. 그렇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서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 참여를 통해 5단계를 이수하고 올해 초에 국적 취득하였다.

내가 하는 일:

나도 도급제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일을 한다. 나는 ‘동매산업’ (동매)이

란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처음에 도급제 일을 하다가 그만 두고 일반 회사에 들어가 시급제로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도급제로 일을 하게 되었다.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안전교육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개인이 요령껏 알아서 조심하며 일을 한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가위질을 하니까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금 생각해 보니 하지정맥의 원인이 바로 장시간 서서 일을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물건을 옮길 때 나는 좀 힘들다. 물건들이 무겁기 때문이다.

3. LIN:

중국 칭다오에서 왔다. 관광비자로 왔다가 지금 미등록된 상태이다. 한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되었다.

내가 하는 일:

나는 처음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은 식당에서 일을 한다. 주방에서 일을 하고 1주일에 1번 쉴 수 있다. 안 쉬면 일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한 달에 약 300만 원을 번다. 미등록 신분이다 보니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걸 조심해야 한다. 아니면 신고를 당할까봐 늘 두렵다.

4. FENG: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다. 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남편 옆에 왔다. 내 남편은 조선족 분이고 나는 한족이다.

내가 하는 일:

남편 따라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 현장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남편을 도와주면서 일을 한다. 일당으로 10만 원을 벌고 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한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 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나는 청소일을 해서 안전모 같은 건 제공 받은 적이 없다. 물론 안전화도 없다. 다른 작업을 하는 분들은 다 있어도 나만 없는 것 같다.

5. YAN:

결혼해서 한국에 왔다. 아들 한 명이 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다. 나는 한국에 온 지 11년이 되었다.

내가 하는 일:

남편과 함께 타일을 붙이고 있다.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타일 같은 것은 무겁고 무거운 타일을 들고 붙이고 해야 해서 얼마 전 허리 수술을 받았다.

6. HONG:

나는 중국에서 교사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한국에 왔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내가 상상한 것과 많이 달랐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도망쳐 나와 미등록 신분으로 쪽 있었다.

내가 하는 일:

나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을 한다. 주간하고 야간 근무를 같이 하니 한 달에 약 4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렇지만 일요일에 잘 못 쉰다. 오늘은 오랜만에 쉰다. 쉬는 날이면 이제 침을 맞고 다니곤 한다. 너무 오랫동안 고된 노동을 하니 몸이 다 망가진 것 같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무거운 철 덩어리 같은 걸 들고 해야 하니 몸이 더 힘들고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기계 같은 것은 늘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미등록 그만 단속했으면 좋겠다. 어느 날 내가 일을 하는 식당에 단속이 닥쳤는데 나는 재빨리 손님 테이블에 합석을 해서 손님인 척을 했다.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떨린다. 나 이외에 모두가 단속되었다.
- 몸이 아파도 병원에 편하게 못 다니는 것 같다. 건강보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보험이 없어서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의뢰를 해서 MOU가 되어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도급제는 좋는데 나중에 퇴직금 같은 걸 똑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안전하게 일하고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심층면접

날짜: 2025년3월9일(일)

장소: 양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1층 커피숍

인터뷰 진행자: 찬티파니, 이재희

참가자:

닉네임명	나이	비자	한국거주
나비	37세	국적취득	19년
해바라기	33세	E9	2년
다이아몬드	43세	미등록	14년
달	29세	E9	2년
지혜	32세	E9	3년

주요주제:

- 이주,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와 전환점
- 일과 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개선 방안
- 용접 작업의 위험성과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

내용:

1. 나비: 나비는 자유롭게 예쁘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세 아이의 엄마이다. 다 아들이다. 첫째는 전남편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자녀 혜택을 못 받았다. 나는 18세에 일찍 결혼해 첫째 아이를 낳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땐 저돌적인 아이였는데...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좋았다. 그래서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렇지만 결혼과 동시에 지옥에 떨어진 느낌이었다. 나의 결혼은 ‘구속’으로 표현하고 싶다. 고통스러웠다. 이혼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그 후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스스로 되찾게 되었다. 일을 함으로써 경제력을 취득함으로써 ‘구속’이 아닌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 지금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 나에게서는 한국에 온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고 이어 이혼은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다.

나의 일: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기계 소리가 커서 처음엔 머리가 어질어질하였다. 나중엔 적응하고 나니까 괜찮아졌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 나하고 중국 언니하고 다른 외국인 친구, 사장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다. 일이 없을 때 쉬고 일이 많이 있을 때 같이 일을 하고 그랬다. 보너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키워야 하는 나에게서는 편할 때가 있었다. 물론 돈을 많이 못 벌지만 말이다.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작업복이나 안전화 같은 것은 없었다. 안전교육도 없었던 것 같다. 처음엔 사장님이 가르쳐 주면 그냥 따라 했다. 이 회사에서 5년 이상 일을 했다. 지금 출산휴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대해 잘 몰랐다. 상담을 해보지 않았으면 나도 이 제도를 신청하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사장님도 신청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단 제도가 있어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였다.

2. 해바라기: 긍정적 마인드로 삶에 임하겠다는 의지로 해바라기이다.

나는 내 삶에 있어 마이너스가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결혼하기 전에 좋았고 결혼 생활도 나름 좋았다. 보통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겐 전환점이긴 해도 하이라이트는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냥 일을 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내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 돈을 벌어야 하니 보고 싶은 마음은 오로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오로지 나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일:

나는 자루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품 검사하는 일을 한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중 한국인은 약 60명, 외국인은 35명 정도 된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일을 한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거의 없다.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기숙사는 공장 안에 있고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할 때 무서울 때가 많다.** 회사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버스를 대여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다아아몬드: 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워!

나는 작년에 셋째를 한국에서 낳았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캄보디아에 보냈다. 지금 아이가 보고 싶어 죽겠다. 하루 100번이라도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고 좋은 생활을 제공하고 싶어서 참는다. 나는 처음부터 미등록이 아니었다. 나도 **E9** 노동자였다. 3년 계약을 하고 사장님이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당시에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신분이 되었다.

나의 일:

지금은 플라스틱 사출을 하고 있다. 플라스틱 원재료를 기계에 넣어 가열하고 모형을 통해 제품이 나오면 나온 제품을 검사하고 정리를 한다. 원재료를 넣을 때는 기계 위에 올라가야 하니까 조금 위험하다. **안전장치**는 따로 없고 일을 할 때 쓰는 장갑조차 내가 따로 사서 가야 한다. 일을 할 때 조심조심해서 일을 한다. 예전에 분쇄 작업을 하는 분이 기계 안에 휘말려 들어가 오른쪽 팔을 잃은 적이 있고 나는 직접 그것을 보았다. 너무나 무서웠다. 그분은 여자였다. 내 생각에 **여자가 체격이 작고 기계에 키가 안 닿을 때가 많아 그래서 발에 무엇을 밟고 올라가 작업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다.** 내가 일을 하는 곳에는 한국 사람이 없고 외국인만 16명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사장님은 욕을 너무 많이 한다.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미등록이니까 욕을 들어도 그냥 넘어간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신고를 당할까봐 많이 참는다.

4. 달: 어둠에 빛을 비추고 싶다. 그래서 ‘달’입니다.

15살에 학교를 자퇴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19살

에 나는 인생의 첫 번째 생일파티를 해봤다. 그때 그 느낌과 그 감정이 아직까지 생생하다. 지금의 나의 29년 인생 중 여러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다. 일찍이 일을 시작해서 일찍이 결혼하였다. 25살에 남편과 만나 결혼하고 2년 후인 27살에 한국에 일하러 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밝지 않은 나의 인생에서 남편은 약간 촛불 같은 존재였다.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앞으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

나의 일:

에어컨, 세탁기 등을 조립하는 일을 한다.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용접일도 같이 해야 한다. 용접일을 따로 배우지 못하였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게 되었다. **용접할 때 안경과 안전 모자가 없어서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눈에 들어갈 때가 많고 되게 위험하다.** 회사에는 한국인 25명 정도, 그리고 외국인 5명이 있다.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여자 3명이 같은 방을 쓰고 남자 2명이 같은 방을 쓴다. **화장실과 목욕하는 곳은 밖에 있어서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너무나 춥고 힘들다.** 기숙사 비용 공제를 안 하니 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5. 지혜: 지혜롭게 살고 싶다.

나는 공부를 좋아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19세부터 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29살에 한국에 일하러 왔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어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휴가를 마음대로 낼 수가 없어서 가보지 못 한 부분에 대해 늘 할머니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힘든 것은 보고 싶은 가족을 못 보는 것이다. 한국어도 너무 어려워서 옆에 친구가 없으면 나는 혼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나의 일:

나는 니잇 씨랑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한다. 일은 힘들지만 옆에 친구가 있어서 의지가 된다. 나는 한국어를 못하니까 늘 위축된 느낌이었다. 나는 용접을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무섭다. 불이 무서워도 회사에서는 다 똑같이 하니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무조건 혼자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은 계약서상 조립만 시키면 좋겠지만 **용접**까지 시키니까 나도 당연히 회사가 시킨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계가 낡아서 나는 힘들다.

클로징

- 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불편한 것도 내가 스스로 적응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인터뷰를 통해 나는 어디가 문제인지를 약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 같

다.

-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런 작업을 통해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나는 지금 셋째 출산을 하고 사실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다.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 당당하게 쉴 수 있게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 너무 재미가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니까 힘이 생긴 것 같다.
- 이걸 끝내고 어떻게 되는 거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그리고 성추행, 성폭력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농담으로 여겨지는 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어떤 말과 행동을 조심을 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태국 여성노동자 심층면접

날짜: 2025년4월6일(일)

장소: 사단법인 함께하는세상 인근

인터뷰 진행자: 부파, 히로미

주요주제: 이주여성의 노동·안전 실태 파악

내용:

1. BE: 43세, 싱글, 현재 한국에 16년 거주, 현재 무비자

2016년에 E9 비자로 일을 하러 한국에 왔다. 사업장 변경이 안 되어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현재 CNC로 일을 하고 있다. 태국인 4명, 스리랑카인 3명, 총 7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중 여자는 3명이고 남자는 4명이다. 미등록 4명 중 여자는 3명이다. 중개업체가 없고 회사가 직접 고용하였다. 일을 할 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근데 너무 덥고 일을 하는 공간에 통풍이 잘 안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때가 많다. 냄새가 나긴 하는데 숨을 못 쉬는 것보단 나으니깐 참는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몸은 힘들고 하지만 정신이 힘들지 않아서 한국에서 가능하면 계속 살 생각이다. 태국에 가면 나는 못 견딜 것 같다.

2. GUANG: 35세,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있다. 모두 무비자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다. 첫째 아이는 18살이고 둘째는 19개월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첫째를 낳았다. 둘째는 한국에서 낳았다. 그런데 한국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태국으로 보냈다.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나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벌써 7년이 되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중개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매월 월급에서 4.5% 공제를 받는다. 중개업체한테 주는 수수료이다. 회사는 큰 편이다. 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태국, 러시아, 인도 등의 나라에서 왔다. 총 인원은 약 100명 정도 된다. 그 중에 남자와 여자는 각 50% 정도이다.

나는 전에 일을 했던 곳에서 아직까지 월급을 못 받았다. 항상 그랬던 것 같다. 그 전에도 월급을 못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미등록이라 항상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3. NENG: 43세, 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다. 무비자이다.

나는 광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중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할 때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나 나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 관리자가 아닌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나를 많이 시킨다. 마음 같으면 저항을 하고 싶는데 하도 단속을 많이 하니 주변에서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가만

히 있다. 일하는 공간은 막혀 있다. 지금 한국에서 불로 인해 모두 힘들다. 산불이 많이 났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고 생각해 보니 너무 무섭다. 회사에 불이 나면 같은 공간에 사람은 많고 나가는 길은 없으니 그 안에서 모두 다 타죽을 것 같다. 출구는 딱 하나이고 다른 문이 있는데 앞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서 실제 통로로 볼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곳은 연장 근무까지 하면 240~250만 원을 벌 수가 있고 나는 매월 태국에 있는 아이에게 2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질문1: 세 분이 모두 미등록이고 여성이고 이주여성노동자로서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대답:

1. 단속의 문제

요즘 단속 너무 심하게 하니까 밖에 잘 못 나간다. 저번 주에 산막공단에 봉고차 7대가 와서 많이 잡아갔다. 그리고 원룸이나 시장에서 단속하기도 한다. 특히 회사 같은 경우 기계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치기도 한다. 뽕 씨가 단속에 당할 뻔했었다. 다행히 조용히 후문으로 도망쳐 나와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광하고 능 씨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 통로가 없어서 도망치기 어렵다.

2. 병원의 문제

건강보험이 없다 보니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참다가 결국 갑작스러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저번 주에 태국 분 한 분이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희년의료공제회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멀고 해당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계가 있다. 양산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광 씨는 한국에서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병원비는 5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안심하고 병원에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2: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에 있는 이유가 뭘니까?

■대답: 태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없고 게다가 물가는 거의 한국과 비슷하다. 너무 비싸다. 태국에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한국에 있으면 물론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하면 먹고 살 수가 있고 게다가 조금이지만 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것이 한국에서 계속 머무는 이유이다.

■질문3: 내가 이주여성이어서 일을 하는데 누구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대답: 이런 경우가 너무나 일상적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맘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미등록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옆에 와서 몸을 스쳐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말도 그렇고 나는 비록 한국어는 잘 못 하지만 뉘앙스는 다 알고 느낀다. 잠깐 기분은 나쁜데도

어떻게 세계 저항할 수가 없다.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

클로징

- 인터뷰를 통해 ‘안전’에 대해 새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일을 하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찾았던 것 같다.
- 좋은 시간이었다. 산부인과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 회사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없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단속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비자를 다 뺐으면 좋겠다.

필리핀 여성노동자 심층면접

날짜: 2025년3월2일(일)

장소: 양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1층 커피숍

인터뷰 진행자: 양유정, 리샤오나

참가자:

닉네임명	나이	비자	한국거주
해피	54세	F6	22년
린	42세	국적취득	19년
행복	27세	E9	10개월
로브	34세	미등록	9년
리스	30세	미등록	8년
진주	37세	국적취득	16년

주요주제:

-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
- 미등록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필요성
- 노동자들의 권리 알기의 중요성

내용:

1. 자기 소개 -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비유로 소개를 해본다.

예를 들어, 나는 ‘물’ 같은 사람이다.

해피: 나는 ‘행복’ 이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

린: 사랑? 나는 사랑을 받고 살고 싶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가족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행복: 트리로 하겠다. 나는 지금 일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일을 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래서 빨리 자립을 했으면 좋겠고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싶다. 그래서 ‘트리’ 로 나를 소개하고 싶다. 굳건하게 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러브: Singer이다. 원래 필리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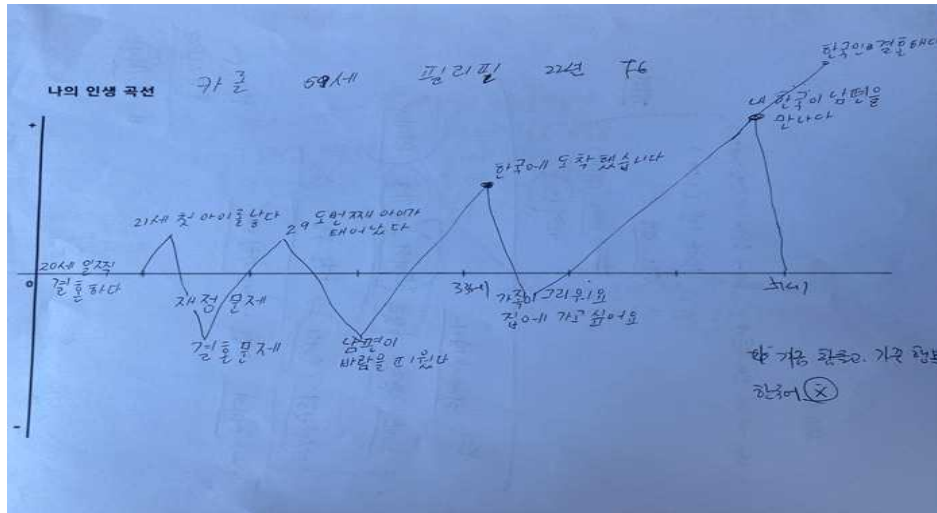
리스: 나는 ‘해피’ 이다. 지금도, 나중에도 해피했으면 한다.

진주: 무엇으로 소개를 해야 할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는 내 이름 효주로 하겠다. 재밌네요~~

2.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에 관한 고민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해피: 20세에 결혼하였고 다음 해 첫째 아이의 출산으로 엄마가 되었다. 이러한 행복감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혼생활에 있어 그렇게 순조롭지 못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들었다. 둘째 아이를 출생함에 따라 가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결국 남편의 외도로 나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 이듬해 한국에 입국해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벌써 22년이 되었다. 나는 지금의 나의 인생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고된 노동으로 몸은 피곤하지만 현재 나의 한국인 남편이 있어 나는 힘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



안서균 그림 42. 피리핀 2002년도 3월

나의 인생 곡선

행복, 즐거움, 관심, 기쁨

7+

저는 7살 때 학교에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4살에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열한도 이상에 결혼한 한국인 남자를 만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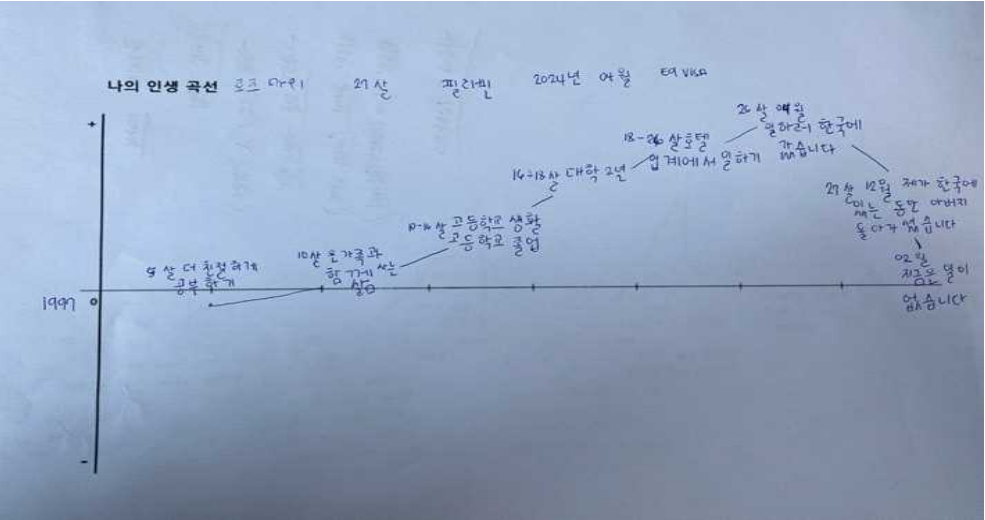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2002년에 저는 한국인 학생 남자와 이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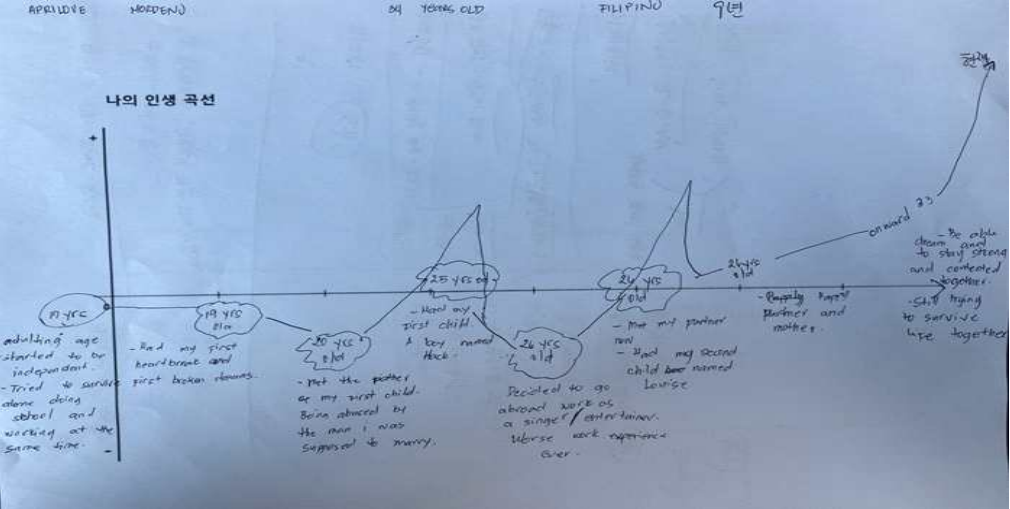
고통, 슬픔, 상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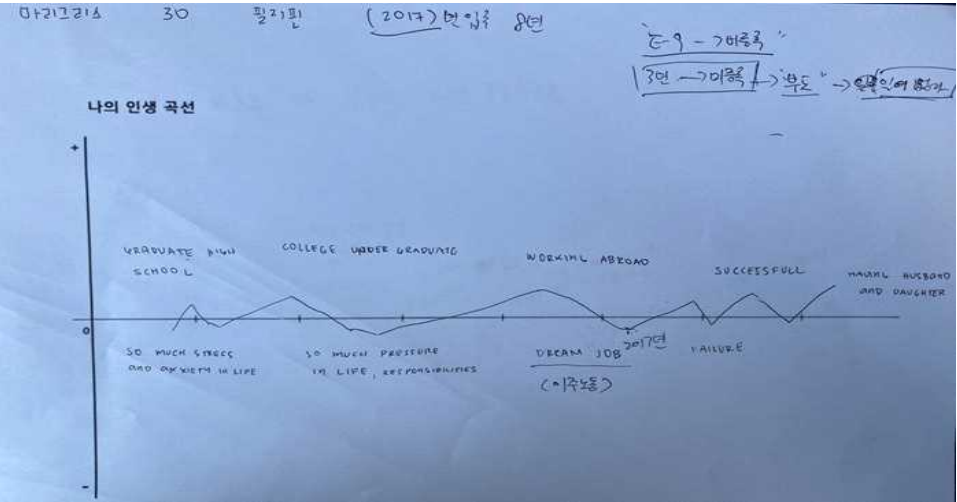
행복: 내 삶에 있어서 특별하게 힘들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는 처음으로 힘들게 경험하게 되었다. 2024년 4월에 한국에 들어왔고 같은 해 12월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되어 가보지는 못했다. 나는 지금도 매일 괴로워하고 있다. 회사에 일이 많이 없는 관계로 나는 2개월 동안 구직 중이다. 직장도 빨리 구해야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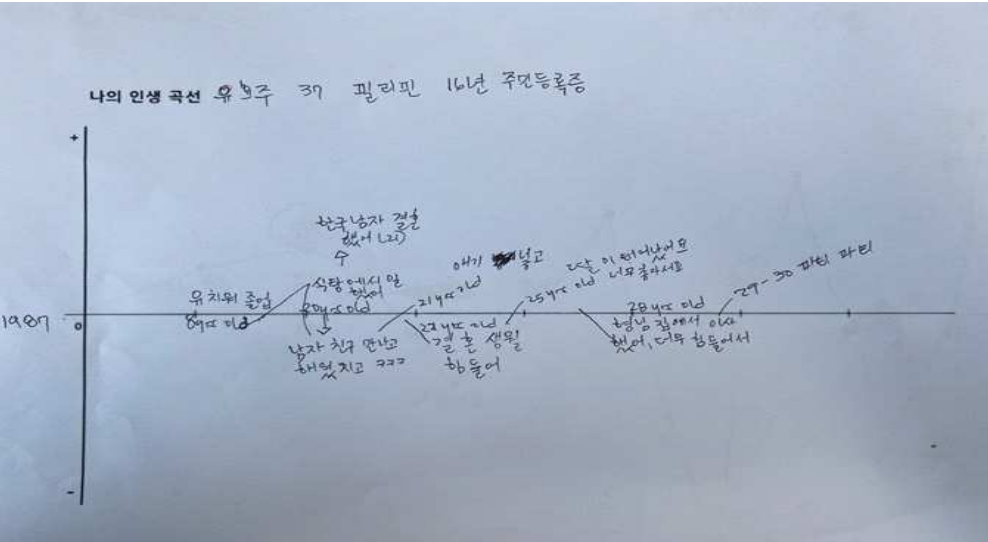
러브: 17살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하였다. 19살에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힘들었다. 20살에는 첫째 아이의 아빠를 만나 갑작스럽게 결혼까지 하였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25살에 나에게 희망을 안겨준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26살에 한국에 들어왔다. 이어, 내 진정한 파트너를 만나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인생이었다. 지금은 34살인데 물론 한국에서는 미등록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가장 행복하다. 나는 다시 가수를 꿈꾼다. 내 현재의 파트너에게 무한 감사한 마음이다.



리스: 2017년 입국하여, 현재 8년 차로 한국에서 살고 있다. 처음엔 E-9 비자로 들어왔다가 회사의 부도로 인해 더 이상 비자 연장은 안 되었고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신분이 되었다. 8년 동안 늘 불안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도 늘 조심스러웠다. 지금 단속 심해서 곳곳에서 단속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럴 때 밖에는 거의 못 나간다. 시장이나 마트조차 불안전하니까 무서워서 편히 못 다닌다.



진주: 21살 젊은 나이에 한국 남편과 만나 결혼해서 한국에 왔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도 하였다. 같은 해 말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서툰 한국어, 서툰 한국 문화에다가 서툰 결혼 생활까지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다. 25살에 둘째 딸이 태어났다. 딸의 출생과 함께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받게 되고 삶의 희망을 다시 안게 되었다. 결혼 8년 동안 우리는 형님 댁에 얹혀살다가 이후에 독립적으로 살게 되었다. 그 때 나의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았다. 지금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고민이다.



3.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

-직접 고용의 여부-

- 마리 그리스 빼고 인터뷰 참여한 분들 고용주가 모두 직접 고용을 하였다.
- 도급제 2명
- 계약서는 따로 없다. 도급제이기 때문이다.
- 계약은 했는데 내가 따로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안전교육 여부-

-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3일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그 중 안전교육은 없었다.
- 기계를 조정하고 시작하기 전에 안전 센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을 시작한다.
- 도급제라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안전교육 같은 것 없었다.
- 1년에 1번 교육이 있었다. 그런데 도움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

- 외국인은 30~40명 정도 되고 한국 사람은 10명 정도 된다.
- 남자는 5명 정도 되고 똑같이 일을 한다.
- 외국인 15명 정도 되고 한국 사람은 약 5명 정도이다.
- 한국인 30명이며, 외국인은 15명 정도 된다.
- 한국인 3명, 외국인 8명이 있다.

-작업복, 안전화-

- 회사에서 남자하고 같은 일을 한다. 용접 복장은 약 3KG 정도 된다. 바지까지 입으면 너무 무거워서 용접용 바지를 입지 않을 때가 많다.
- 회사 측 제공 안전화는 여자인 나에게 무거워서 신고 일하기가 힘들어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회사에 개선 요구를 하였는데 소용이 없었다.
- 작업복, 안전화는 따로 없다. 그냥 자기에게 편안한 복장을 입고 일을 한다.

-작업 장소 및 기계-

- 프레스 기계는 보통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정맥이 왔다.
- 기계가 다 높으면 내가 맞추기 위해 발판을 따로 만들어서 일을 한다.
- 회사에서 준비를 해줘야 하는 발판을 내가 준비해서 사용한다.
-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늘 키가 작아서 물건이 닿지 않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그럴 때 간이의자 등을 사용해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한다.
- 프레스 기계에는 안전 센서가 있는데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안전 센서를 꺼버릴 때가 많다.

-비자 및 기타-

- 비자가 없으니까 항상 무서우니까 안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으니까 불안하다.
- 비자가 없어서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한다. 요즘 단속이 심해서 무섭다. 지금 한국에 나의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단속하게 되면 내 파트너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단속을 피해 야간 근무만 한다. 1년 365일 야간만 하여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은 덜 힘들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5시까지 일을 한다. 중간에 식사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 빨리 일을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과연 내 주장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클로징-

○비자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비자 없는 사람들의 조건이 좋아져야 한다.

○52시간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보험처럼 국가가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여 나의 삶이 조금 좋아졌으면 한다.

○미등록 노동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도급제 하는 친구들이 퇴직금을 받는 문제와 함께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 받는데 있어 이 부분이 큰 싸움임을 인식하였다.

○인생 곡선을 그리는 것이 재미있었다. 바쁜 일상에 놓여 있는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